

산림청, 산림분야 우수 지방정부 선정

전국 12개 광역지자체 우수기관 선정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해 지방정부 산림사업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산림분야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시됐다.

산림청은 ▲산림자원 육성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 ▲산불방지 성과 ▲임도시설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목재이용 활성화 등 산림분야 6개 지표의 달성도를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평가 결과, 6개 지표 모두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우수기관에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11개 광역지자체가 이름을 올렸다. 산림청은 우수사례를 전국으

로 확산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정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산림재난 예방을 위해 힘써준 지방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브리프’ 7월호 발간

녹색·AI 전환 담은 정책 방향 조명 산림 연구 성과와 정책 과제 한눈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6일 기후위기 시대 산림의 역할과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한 ‘산림과학브리프’ 7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 특별기고에서는 미래 산림과학과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담겼다.

남성현 국민대학교 석좌교수(전 산림청장)는 녹색전환(GX)과 인공지능전환(AI)을 결합한 산림과학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과학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가상존 단국대학교 분

쟁해결연구센터 소장은 지속가능한 산림정책 추진을 위해 협치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산림과학브리프 7월호

주요 연구 성과로는 △농림 위성 발사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 역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드론 LiDAR 기반 산림자원정보 구축 등이 소개됐다.

이와 함께 해외 동향으로는 미국과 프랑스의 산림정책 사례, 유엔기후변화협약 REDD+ 논의 흐름, 산불관리 정책 등을 다루며 국내 산림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정책연구과 유리화 과장은 “기후위기와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산림과학은 연구 성과를 넘어 국가 정책과 미래 전략을 선도해야 한다”며 “산림과학브리프가 국내외 산림정책과 연구 성과를 연결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림청, 평창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7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평창군 산양산양복합지원센터에서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고강도 예찰·방제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전국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직전 방제기간

(2025.6~2026.5) 동안 12개 시·군이 신규 발생한 데 이어, 이번 강원 평창의 신규 발생으로 인해 전국의 재선충병 발생 지역은 총 167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산림청 헬기, 드론, 지상 예찰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발생지로부터 반경 5km 이내 구역의 모든 고사목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밀 예찰을 전격 실시해 예찰 및

역학조사를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찰 결과를 토대로 방제기간 도래 즉시 감염목을 전량 방제해 초기에 확산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처럼 신규 발생 및 경미 지역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제전략을 적용해, 오는 2030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전국의 167개 시·군·구 중 50개 이상을 재선충병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분석에 따

르면, 최근 신규 및 재발생지의 70% 이상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시켜 발생하는 ‘인위적 확산’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발생지 기준 반경 2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통제하고, 주변 탐문조사와 불법 목재 취급업체 단속을 대폭 강화해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국립산림과학원, 고삼추출물로 방제율 59.3% 달성

친환경 방제제로 러브버그 확산 저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7일(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의 밀도 조절을 위해 유기농업자재(친환경 방제제)를 활용한 야외 실증 실험을 실시한 결과, 탁월한 살충 및 방제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실험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발생하여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러브버그를 친환경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해 실내 실험에



▲러브버그 야외 현장실증 실험

서 살충 효과가 검증된 유기농업자재를 선별한 데 이어, 올해 야외 실증 실험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강력한 방제 효과를 입증해냈다. 야외 효과 실험에서 처리구와 무처리구의 성충 우화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식물추출물(고삼추출물 입제)을 살포한 지역의 고부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친환경 방제제 처리만으로도 러브버그의 대발생 밀도를 절반 이상 억제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결과다. 연구진은 이번 실험 성과를 바

탕으로 방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도 제시했다. 올해 발생한 성충이 산란한 날이 유충으로 부화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어린 유충 시기’에 친환경 방제 처리를 집중 수행한다면, 내년도 러브버그 발생 밀도를 더욱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박용환 박사는 “방제제의 처리 시기와 횟수를 최적화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러브버그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효율 방제 기술을 완성하겠다”라고 자신감을 밝혔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남부지방산림청, 경주 땅밀림 발생지 등 현장점검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수)은 경상북도 경주시 땅밀림 발생지 및 산사태 복구 사업지에서 호우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땅밀림 발생지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사면 붕괴가

발생한 지역으로 땅밀림 징후인 단차가 발생하여 땅밀림 피해 우려지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산사태 복구 사업지는 2023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 발생지로 경주 토함산 일대에 위치하며,

2023년 10월 응급 복구 후 2024년 2월 산사태 복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산사태 등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집중호우 대비 땅밀림

발생지역의 경사지 붕괴 위험 여부, 침하 및 균열 여부 등을 세세하게 점검했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땅밀림 집중관리지역 및 산사태 피해 우려지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불 초기 진화용 대형 무인 드론 모습(산림청 제공)

구를 추진해 왔다. 이 기술은 △열화상 카메라와 AI로 산불을 조기 발견하는 ‘감시드론’, △불길의 확산을 탐지·예측하는 ‘분석드론’, △100kg급 진화약제를 에어로졸 기술로 직접 살포하는 ‘진화드론’을 단계별로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산불 초기 헬기 투입 전 공백과 야간 진화의 한계를 극복할 핵심전략으로 꼽힌다. 그러나 약제를 포함해 무게가 400kg에 육박하는 대형 진화용 드론은 ‘항공안전법’ 상 무인항공기로 분류돼 △비행 7일 전 사전 허가, △야간비행 금지, △비가시권 비행 금지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강풍, 난기류, 자욱한 연기 등 실제 산불 현장의 돌발 변수를 반영한 실증 실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으로 연구개발 및 후속 실증 기간 동안 해당 규제들이 과감히 면제된다. 산림청은 실제 재난 환경과 동일한 ‘실전형 시험대’에서, 첨단 드론 기술의 현장 적합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도매시장 거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경매·입찰
품목별로 정해진 시간에 공개적·경쟁적 거래를 통하여 수급사정을 반영한 가격에 낙찰



정가매매·수의매매
출하자와 구매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조건(가격, 물량 등)을 기초로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거래를 주관



전자거래(상·물 분리거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면 물건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송



예약거래
도매시장법인과 상의하여 미리 예약거래 (3일, 7일, 한달, 시즌별 등)